

음식규제와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강상우

요약

본 연구는 여러 종교에서의 음식 규제에 관한 것이다. 본고는 여러 종교에서의 음식에 대한 규제(특히 肉食規制)는 그 종교의 성격이 자력종교(自力宗教)인가 아니면 타력종교(他力宗教)인지를 보여주는 것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타력종교인 기독교와 달리 메시아(Messiah)가 이 땅에 오심(成肉身, incarnation)이 존재하는 않는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은 음식에 대한 규제를 통해 스스로 신성(神性=救援)에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도래한 기독교는 음식의 규제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다. 왜냐하면 구약의 음식 규제에 대해서 율법의 완성자(律法 完成者)가 되시는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아 음식에 대한 규제(율법)들은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스스로 자신들을 기독교라고 하면서 구원과 관련해서 음식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는 이들은 정통기독교와는 다른 이들이거나, 구약의 율법으로의 회귀를 꿈꾸고자 하는 자들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구약(히브리 성경)만을 믿는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期待)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음식에 대한 규제(kosher)는 폐지되지 아니하고 지켜져야만 하는 엄격한 율법으로 존재하게 된다.

다음으로 자력종교들의 음식(특히 육식)에 관한 규제는 동물권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들 종교의 정신과 더불어 종교의 정신을 실천하는 신자들에 의해서 실천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어 지고 있느냐에 따라 동물권을 강화하느냐의 여부가 결정되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종교적 가르침 못지않게 그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들이 어떻게 종교의 가르침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느냐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주제어: 자력종교. 타력종교. 메시아. 성육신. 율법의 완성(자). 동물권.

음식규제와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다음은 세계화와 더불어 노동력의 이동으로 인해 한국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이슬람교도인] A 씨는 “한국 식당에서는 돼지고기가 많이 나와서 이슬람교도들은 열심히 일하고도 밥을 많이 먹을 수 없어 힘들다”고 했다. 이어 “공장 사장님, 사모님은 돼지고기를 주면서 ‘다 먹어, 괜찮아’ 라고만 했다”며 “평소에는 김치와 맨밥만 먹었고, 달걀이라도 나와야 그나마 밥을 많이 먹었다”고 털어놨다.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B 씨는 반대 경우다. 쇠고기 반찬만 나오면 난처해지기 짝이 없다. 소를 못 먹는 힌두교 신자이지만, 나물에도 쇠고기 기름이 들어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이주노동자 스스로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곳도 있지만, 따로 먹다 보니 동료들과는 서먹해지기 일쑤다. 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이슬람교도의 경우 회식할 때 돼지고기를 먹는데 혼자 쇠고기를 먹느라 눈치를 보기도 한다”며 “닭고기나 오리고기 같은 경우 무난하게 먹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김민재, “‘제육볶음만 주면 어찌란 거?’ 속 타는 이주노동자들” <노컷뉴스> (2013.06.15.); <http://v.media.daum.net/v/20130615060306607?f=o11>)

종교에 따라 다양한 음식규제가 존재한다.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자신들이 믿는 종교에 따라 음식에 대한 규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교들이 지니는 음식규제에 대해서 한국인 고용주와 동료들의 작은 배려(配慮)와 인지(認知)의 부족(그것이 고의적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등으로 인해 앞의 기사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 研究問題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종교와 음식규제

연구문제 1: 음식에 대하여 종교(들)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가.

1) 다음 기사도 참고. <http://v.media.daum.net/v/20141124153405326?f=o>; 손병호, “호주 이슬람교 사원에 금기시 동물 돼지 사체 투척 테러”, <국민일보>. (2014.11.24.); <http://v.media.daum.net/v/20150318181212228?f=o>; 박성진, “프랑스서 이슬람 금기 돼지고기 학교 급식 논란” <연합뉴스>. (2015.03.18.); 최 훈 교수도 비슷한 지적을 한다(최 훈, 2012: 48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슬림들을 돼지고기 제품 생산관리에 배치한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을 받아들여 외국인 노동자의 업무변경을 결정하였다.(이정순, 2012: 225; 고현국, “돼지고기 금기 이슬람교도 순대공장 배치는 인권침해” 『동아일보』, [2012.04.04]. A12면. 참조);

2015년 6월 프랑스 센강을 가로지르는 샤를 드골 다리에 무슬림난민 텐트촌이 설치되었는데, 그곳의 금식으로 ‘할랄식품’을 지원했다고 한다.(구정은·김세훈·손계민·남지원·정대연, 2016: 130-131, “무슬림 난민에게는 ‘할랄’ 급식” 참조).

연구문제 2: 음식에 대한 종교의 규정은 종교의 성격(自力宗教 또는 他力宗教)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이들 종교 규정이 동물권(動物權)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2 研究範圍

본 연구문제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범위를 다루고자 한다. 1) 먼저 음식에 대한 규정, 특히 육식에 대한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각각의 종교들은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이슬람교의 할랄과 하람(Halal and Haram), 유대교의 코셔(Kosher)에 대해서, 그리고 이슬람교와 유대교에서 왜 돼지의 식육을 금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 될 것이다. 힌두교의 경우 암소를 왜 신성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불교의 경우 음식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자의 종교인 기독교의 경우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음식에 대한 규제로부터의 자유함이 존재함에 대해서 기술할 것이다.

2) 두 번째로 (1) 음식에 대한 종교의 규정이 종교의 성격(自力宗教 또는 他力宗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할 것이다. 그리고 (2) 더 나아가서는 종교의 가르침이 동물의 권리 등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이다.

3 研究觀點

본 연구의 관점은 먼저 극히 개인적임을 밝힌다(본 연구자는 기독교인이지만 본 연구자의 생각이 기독교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동의할 것이다], 이는 단지 매우 개인적인 私見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밝히고 싶다. 誤解의 소지가 없도록).

연구자가 볼 때에 기독교를 제외한 이들 종교들에 음식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날 자칭(自稱) 그리스도인[정통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이라고 하면서 구약의 음식에 대한 규례의 준수로 가고자 하는 이들(舊約으로의 回歸을 꿈꾸는 自稱 基督教人)을 포함한 종교들의 특징은 이들 종교에는 메시아(Messiah, 삶의 全領域에서의 規制의 解放者이신 하나님)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메시아가 아직 재림(到來)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다. 자신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메시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과 신성에 이를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음식에 대한 규제의 준수를 스스로 규정하고 준수하고 있다는 점이다.²⁾ 즉 이들 종교들이 자력종교(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거나 스스로 신성에 도달하려고 하는)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구원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발버둥치는 방편의 하나로써 음식에 대한 규제의 준수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물론 각 종교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말이다. 이는 메시아의 초림을 경험한 기독교의 경우 타력종교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음식 규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기독교’, ‘예수님’, ‘구원’, ‘성령’이라는 단어를

2)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는 서양의 유일신 전통들 중에서 유대교는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입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기독교는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가 하느님이기도 하다고 말하며, 이슬람교는 예수가 메시아였고 심지어 재림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예수가 하느님이라는 입장을 인정하지 않는다.”(Morreal & Sonn, 2015: 18).

립-서비스(lip service)하면서도 구약의 음식 규제를 강조하는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메시아의 초림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들 스스로 이신칭의(以信稱義)의 교리를 부인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은 정통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하나의 이교도(異教徒)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하겠다.

II 宗教와 飲食

1 종교와 飲食規制

종교 별로 종교 특유의 음식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 별로 허용되는 음식과 금지되는 음식들이 존재하는데 [표]를 통해서 이에 대해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종교별 허용음식과 금지음식					
종교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생선
기독교*	O	O	O	O	O
이슬람교	X	Halal	Halal	Halal	Halal**
힌두교	X	X	O	O	O
유대교	X	Kosher	Kosher	Kosher	Kosher**
불교	X	X	X	X	X
제7일안식일재림파	X	X	X	O	O

* 항목(기독교)은 본연구자가 추가하고, 반면에 레스터페리안과 시크교도는 삭제하였다.

** 인용 전의 책에서는 생선부분에서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모두 가능한 것(O)으로 나왔으나 개인적으로 생선 부분에서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율법에 의해 규제가 있으므로 Halal과 Kosher로 바꿨다. 이슬람의 경우 생선에 대한 halal과 haram에 대한 해석은 각 파마다 상이하다고 한다.(이성범, 2013: 26-27; 엄익란, 2011: 38-39 참조).

자료: www.nutrition.org.uk; 김종덕, 2012: 75 재인용.

종교에 따라서는 肉고기 중 일부에 대해서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슬람교와 유대교에서의 돼지고기와 힌두교에서의 쇠고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육고기의 경우에도 복잡하게 자신들의 종교가 지정해준 도살방식으로 도축되었을 때에만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슬람교의 경우 음식금지사항(飲食禁忌事項)을 자비할(Dhabihal)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슬람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도록 해준다고 한다.(//islamic-practices.suite101.com/article-cfm/ritual_slaughter_in_islam_dhabihah). 먼저 ‘할랄

(Halal, **حلال**)은 그 뜻이 ‘신이 허락한 좋은 것’(lawful) 또는 ‘허용되는 것’(permissible)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리킨다. 이슬람에서 할랄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할 3무(三無)가 있다고 한다. 즉 독이 없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 할랄과 대조되는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하람(Haram)’이 있다. 하람은 그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금지되는 것(prohibited)’이며 ‘불법적인 것 (unlawful)’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특히 먹도록 허용된 육고기의 경우에도 이슬람식 도축법(자비하 Zabihah 또는 Dhabihah. 할랄도축법의 가장 큰 특징은 ‘신의 이름으로 신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며 경동맥을 한칼에 끊는 방식이다.)을 엄격히 충족해야만 할랄식품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유대교의 경우, 유대교의 음식금지사항을 카쉬루트(Kashrut)라고 하는데, 이 규정에 적합한 식품물을 코셔(Kosher)라고 부른다.[먹는 것은 물론이고 가까이 하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는 것을 트라이프(Trife)라고 한다]. 코셔는 말 그대로 ‘적당한, 먹기에 합당한’(fit or allowed to be eaten) 식품물을 뜻한다. 특히 먹도록 허용된 육고기의 경우 유대 율법에 합당한 도축법인 셰치타(Shechita, kosher slaughter, 코셔도축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동물은 신의 창조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도살 할 때에는 되도록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하므로 거꾸로 동물을 매달아 아주 날카로운 칼로 단숨에 경동맥을 끊는다는 점이다. 사라진 제사장을 대신해서 셰치타[Shechita]를 담당하는 이를 쇼헛[shochet]이라고 한다)를 엄격히 준수해야만 한다.³⁾ 참고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오늘날 종교들에 관한 음식규제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경우들(견해)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짚짚이 기술하고자 한다.

2 힌두교: 神聖한 암소

먼저 힌두교의 음식 규제 중에서 일반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육고기는 바로 쇠고기다. 일반적으로 힌두인들은 암소를 신성시 한다. 그래서 먹지 않는다. 불결해서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너무나도 신성하기 때문에 먹지 않으며,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Go hamari mata hai!”(암소는 우리들의 어머니다!)라고 외친다(Simons, 2005: 158)고 한다⁴⁾

3) 참조.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vkajrj2&logNo=220330364714>(“할랄과 코셔의 뜻-할랄, 코셔인증 제품 추천/유기농 허브차”); <http://cafe.daum.net/seachurch/MZi8/72?q=%C0%AF%C5%2%B1%B3%B5%B5%C3%E0%B9%E6%B9%FD&re=1>(“이슬람 음식과 유대 음식” 참조).

유대계 학자인 로이스 버먼에 의하면, 쇼헛(shochet)은 규정된 도축의식 즉 셰히타를 범하지 않도록 다섯 가지 사항들을 조심해야 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유제덕, 2009: 151-152). 먼저 쇼헛은 도축하는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축대상이 되는 동물의 경정맥(목정맥)을 자를 때는 망설임 없이 정확한 지점에 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의식적으로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 도축 시간을 지연시켜서 얻은 고기는 먹을 수 없는 트라이프가 된다. 둘째 도축을 할 때는 과도한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 경정맥은 물론이고 식도와 기도까지 깔끔하게 잘라야 한다. 하지만 척수 부분을 건드리어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 동물을 모욕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셋째,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쇼헛은 도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언제든지 도축을 할 때는 작업장의 조명을 밝게 하고 허술한 옷차림을 해서는 안 된다. 넷째, 오차를 줄여야 한다. 쇼헛은 동물의 식도에 있는 분비선과 연골성돌기의 구조에 관해서 자세히 공부해야 한다. 정확한 절단선을 맞추지 못하면 정상적인 도축이 될 수 없고, 고기는 먹을 수 없게 된다. 다섯째, 도축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동물의 식도와 기도의 절단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그때 주변의 근육이 찢어지거나 제대로 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고기가 된다. 쇼헛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칼을 예리하게 갈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담비에게 칼과 도구를 점검받아야 한다.

4) “[이 시각 세계] 국회 몸싸움은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닌가 봅니다. 인도 의회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는데, 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국회의원들이 서로 샷대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어제(8일) 인도 카슈미르 의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전날 밤 무슬림인 한 야당 의원이 만찬 자리에 쇠고기를 내놓은 데 대해 힌두교 여당이 발끈한 겁니다. 힌두교에서는 소가 곧 신이어서 쇠고기가 금지되

1) 먹을 수 있었던 쇠고기

일부 학자들의 연구들과 이들이 기술한 내용들(Jha, 2004; Simoons, 2005; Ambedkar, 1948: 116-121; Brown, 1957: 30-35, 39; 김경학·이광수, 2006; Harris, 2011: Harris, 2010)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본래부터 인도에서 암소는 신성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인도인들은 쇠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인도에서 신성한 암소가 되기 이전에는 소는 먹을 수 있었던 하나의 음식이었다는 것이다.

D. N. 자(D. N. Jha) 교수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인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소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이 확인가능하다고 한다. “『리그베다』는 여러 신들 가운데 특히 적의 요새를 파괴하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구의 인드라에게 바치는 공물로 황소 고기 요리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 『리그베다』의 어느 한 구절에서 인드라는 ‘사람들이 나에게 열다섯하고도 스무 마리의 황소를 잡아 요리해 바쳤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구절에서도 인드라는 황소 고기를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한 마리 혹은 100마리 혹은 300마리 혹은 1,000마리의 물소였고, 아그니가 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Jha, 2004: 46-48).

“『따이트리아 브라흐마나』에서는 암소를 희생제물로 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암소는 ‘바로 음식이다.’(atho annam vai gauh)라고 전혀 애매하지 않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100마리의 황소로 희생제를 치른 아가스띠야(Agastya)를 칭송한다”(K. T. Achaya, 1999: 145; Jha, 2004: 52 재인용).

“후자에서는 존경하는 손님을 위해 암소를 한 번 이상 도살하였다. 빠니니(Panini)가 손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고크나(goghna)를 사용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V. S. Agrawala, 1963: 100; Jha, 2004: 56 재인용; 김경학·이광수, 2006: 39 참조).

프레데릭 J. 시문스(Frederick J. Simoons)는 자신의 책, 『이 고기는 먹지 말라?: 육식 터부의 문화사』(Eat Not This Flesh: Food avoidances from prehistory to the present)에서도 W. 노먼 브라운(W. Norman Brown)의 글의 인용을 통해 D. N. 자(D. N. Jha) 교수가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스크리트어 학자인 노먼 브라운(W. Norman Brown)은 베다 문헌에 나타나는 암소와 일반 소에 관한 증거들을 조사하다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어떤 역사적 시대나 민족 집단을 막론하고, 소를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로 부각시키는 기록이 많은 문헌은 베다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가 제아무리 높이 평가받고

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종교에서 돼지고기를 금지하면 돼지고기 먹는 사람을 때려야 하나며 여당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소고기 먹으라고?” 인도 국회서 한바탕 난투극 <SBS>. [2015.10.09].; <http://v.media.daum.net/v/20151009081605495?f=o>. 원본 링크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09045&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2015년 9월 28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약 45킬로미터 떨어진 비사라에 사는 이슬람교도 무함마드 이클라크(당시 52세)는 동네 힌두교 주민 100여 명으로부터 물매를 맞아 숨졌다. 이클라트가 살해된 것은 그가 쇠고기를 먹었고, 그의 집에 쇠고기 6킬로그램이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집에서 발견된 것은 양고기였다.”(구정은·김세훈·손제민·남지원·정대연, 2016: 149).

존중되었다 하더라도 브라운은 “하나의 동물종으로서의 소, 혹은 암소가 그 자체로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대접받았다는 암시는 … 없다”라고 확신한다.(Brown, 1957: 30-35, 39; Simoons, 2005: 155 재인용).

마빈 해리스(Marvin Harris)도 옴 프라카슈(Om Prakash)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당시 소고기 식용이 브라만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옴 프라카슈(Om Prakash)는 그의 권위 있는 연구보고서 『고대 인도에서의 음식과 음료』(Food and Drinks in Ancient India)에서 초기 베다시대의 사정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불은 황소와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소를 잡아먹는 자이다. 제사에 고기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성직자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염소 또한 불 속에 던져 조상들에게 바친다. 결혼식 때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소를 잡는데 이는 음식으로 먹기 위해서임이 명백하다. 도살장에 관해서도 기술되어 있다. 말, 숫양, 새끼를 배지 못하는 암소, 물소의 고기도 음식으로 조리되었다. 아마 새들의 고기도 역시 먹었을 것이다.’ … 고대 인도인의 식생활 연구의 권위자인 프라카슈에 의하면 350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동물의 고기가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재분배 제사인 ‘스라다스’(sradhas)에서 브라만들에게 제공되었다. ‘쿠르마 프라나(Kurma Purana)는 스라다 잔치에서 고기 한 점을 먹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짐승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라는 구절이 사정을 잘 전해준다.”(Marris, 1995: 229, 234).

2) 먹지 못하게 된 신성한 암소

인도에서 헌법으로 도살이 금지되어 있는 소는 인도 재래종인 보스 인티쿠스(Bos indicus) 암소, 수소를 말하며 인도에는 재래종 소 외에도 물소도 많다. 신성시 되는 소는 재래종 소뿐이며, 물소는 신성시 되지 않는다. 종교적으로는 죽음의 신 야마가 타고 다니는 동물이 물소이므로 소 숭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지만 이를 문화유물론적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면 달리 해석될 수 있다.(정혜경·오세영·김미혜·안호진, 2013: 65).

그렇다면 왜 힌두교는 자신들의 전(前)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쇠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어떤 이유로 먹을 수 있는 소가 먹지 못하는 신성한 소가 된 것일까?⁵⁾

(1) 政治的 理由

먼저 인도인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암소를 신성(神聖)시 한다. 단일화(單一化)된 힌두교 공동체인 힌두뜨와(Hindutva)⁶⁾를 만들기 위한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서 과거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암소에 대해 신성을 부여하고 쇠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암소 여신도 존재하지 않았고, 암소를 모신 사원도 존재한 적이 없다.[A. L. Basham, 1996: 319] 뭐라 말하든지 간에 이 동물에 대한 숭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근대에 들어와 힌두뜨와 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단일적

5) 우유 전문가답게 벨텐(Hannah Velten)은 “인도의 힌두교에서 소를 숭상하는 주된 이유도 우유 때문이다. 즉 인간에게 생명의 우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를 숭배하는 것이다.”고 지적한다(Velten, 2012: 61).

6) Hindutva(힌두가 갖는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일체성으로서의 ‘힌두성’[性]). 실제 역사에서는 이런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일부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힌두뜨와를 주장한 이래로 이것은 무슬림, 기독교도 등 타종교와의 차별을 만들면서 힌두 공동체주의를 세우는 이론적 틀이 되었다.(Jha, 2004: 20 역주).

‘힌두교’의 특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Jha, 2004: 171)

일부에서는 쇠고기를 먹는 것이 이슬람교에서 온 것이라고 조장함으로써 마치 이슬람교도들이 쇠고기를 먹는 풍습을 가지고 온 이방인(외래인)인 것처럼 하는데, 이 또한 좀 맞지 않는 정치적인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 이러한 주장은 이슬람과 힌두교 사이를 대립을 조장하는 정치적 역할을 할 뿐이라고 한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단일교적’ 힌두교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는 자들은 ‘쇠고기 육식은 무슬림들이 처음 가지고 온 것으로 그들은 인도의 외부에서 들어온 외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Jha, 2004: 32-34), 그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슬람교도를 보면 불결한 돼지를 피하듯이 암소와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암소가 주는 부산물인 우유, 똥 등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반응을 강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다. “파키스탄의 다르디스탄(Dardistan)에 사는 쉰(Shin)과 무슬림들은 다른 무슬림들이 돼지를 대하듯 암소와 접촉하는 것을 회피한다. 그래서 그들은 암소가 주는 우유는 마시지도 않고, 암소의 똥을 말려 연료로 사용하는 것도 하지 않으며, 쇠고기를 음식으로 먹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Jha, 2004: 32).

그러면서 과거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을 당시 간디 등 암소 보호(암소 신성화)를 정치적 전략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다른 연구자의 지적을 통해서 자(Jha) 교수가 이를 지적하고 있다. 즉 간디는 대영제국, 무슬림, 또는 자신이 친히 ‘신의 자녀’라는 의미로 ‘하라잔’이라고 부렸던 불가촉천민(Dalit)들의 주장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암소 보호운동을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암소의 신성화는 이처럼 정치적 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⁷⁾

마빈 해리스[Harris, 1966: 58, 60]는 암소 보호를 “간디가 영제국과 무슬림에 대한 대항운동 때 사용한 주요 정치적 무기였다”고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엔 케이 보스(N. K. Bose)는 “암소 보호는 간디가 불가촉천민 철학을 주장한 것과 같은 ‘건설적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하였다(Jha, 2004: 193, 서설 1번 주).

(2) 經濟的 理由

캐서린 그랜트(Catherine Grant)는 힌두교에서의 소를 신성시하는 것의 이면에 바로 경제적인 면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인도에서 소는 특히 농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힌두교도들이 소를 숭배하는 이유는 소가 인도 전역에 분포한 소규모 자급 농업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소는 우유와 노동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배설물은 비료와 연료가 된다. 힌두교도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소를 고맙게 여겨 이에 대한 보답에서 소극 극진하게 대한다.”(Grant, 2012: 46).

마빈 해리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도 소의 숭배로 인해서 소에 대한 신성함을 상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가뭄이나 기아 때에 소를 도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아 때에 눈앞에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소를 잡아먹게 되면 이후에 인도라는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논갈이(쟁기질)가 거의 불가능해 지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부족이라는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 눈에 보듯 뻔하기 때문이란단다.

나[Marvin Harris]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즉 기아를 겪는 동안 소를 대량도살할

7) “암소 보호’는 영국 통치기에 접어들면서 물레와 함께 반영(反英) 투쟁의 상징으로 급성장하였다.” 지적한다.(김경학·이광수, 2006: 62).

경우, 평상시 소의 유용성을 오신한 일부 농부들이 집단의 복리(aggregate welfare)에 위협을 주는 것보다는 훨씬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암소를 죽이는 것을 아주 불경하게 간주하는 감정은, 아마도 순간적인 욕구와 장기적인 생존조건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발생하는 괴로운 갈등에서 연유된 것 같다. 신성한 상징적 의미와 거룩한 교리를 갖추고 있는 암소 숭배는 인도농부들의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않게 해준다. 서양 '전문가'들에게는 암소숭배로 인하여 인도농부들이 암소를 잡아 먹기보다는 차라리 자신들이 굶어죽고자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Harris, 2011: 30).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의 힘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일이라고 말이다. 트랙터가 만들어지는 오늘날에도 그러한 주장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인도와 같은 소규모의 농지와 소작농이 있는 존재에서는 트랙터보다는 소를 통한 쟁기질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한다(정혜경·오세영·김미혜·안호진, 2013: 67). 그뿐만 아니라, 소의 부산물이 경제적으로 매우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용하다는 점이다. 소에서 나오는 오물인 똥과 오줌은 유용하게 사용된다. 소의 오줌은 약으로도 사용된다. 소똥은 수거한 후 짚단을 잘게 썰고 물과 반죽한 후 덩어리로 만들어서 연료로 사용한다. 비록 널리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인도에서는 소똥을 탱크 안에 저장한 후 거기서 생성된 가스를 연료로도 사용하기도 한다. 소똥을 반죽으로 만들어 마당에 깔면 우리의 방 장관과 같이 매끈하고 촉감이 좋다고 한다. 그리고 성스러운 암소는 생명력의 근원인 우유를 제공한다.(김경학·이광수, 2006에 나온 사진 설명 글 참조 인용.) 암소의 우유로 만든 것으로는 요거트의 일종인 다히(dahi), 그리고 정제된 버터인 기(ghee)가 있다. 특히 우유를 정제해서 만든 버터는 사람들을 정화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된다.(Jha, 2004: 149). “도시의 청소부인 하층 카스트(sweeper castes: 수채와 변소 등을 청소하는 인도의 하층민-역주)들은 거리를 방황하는 암소들이 배설한 소똥을 거두는 독점권이 부여되어 있어, 거뒀던 소똥을 가정주부에게 팔아 생계를 꾸려나간다”(Harris, 2011: 28)고 한다.

(3) 宗教的 理由

종교적인 이유로 힌두교에서는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 먼저 역사적으로 불교와의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브라만들은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한다. 또 힌두교의 교리인 윤회의 관점에서도 암소를 죽일 경우 윤회의 단계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소를 먹는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

i) 佛敎와 競爭關係

16세기 붓다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부 인도에서 재산 중 가장 으뜸가는 것은 소였다고 한다. 전쟁의 원인도 바로 그 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 당시 왕들은 더 전쟁에서 더 많은 소를 획득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의 소를 희생제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당시 문명의 전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목 중심에서 농사에 기반을 둔 새로운 문명이 발생하게 되었다. 새로 발생한 농경 문화에서 소를 매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브라만에 대해 불

만들이 농부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제사가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특히 불교의 경우는 브라만교의 종교제사의 가치에 도전하였고, 이에 대해 농업의 필수적 요소인 소를 잃었거나 잃을 수 있는 처지의 농민들의 바로 브라만의 제사제도에 도전하여 불교의 편에 선 것이다. 그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브라만들은 소의 희생 제사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브라만은 쇠고기의 달콤한 맛을 포기하고 스스로 채식주의자의 길에 선 것이다.⁸⁾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경은 잉여 생산을 가져왔다. 이것이 교환 경제로 이어지면서 전쟁에서의 전리품 획득과 제사에서의 공물 수합을 분배하던 전 시대 경제는 이제 농업 경제로 대체되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생산 수단의 중심인 소는 희생되어 없어지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서 제사의 존재 가치에 대한 사상적 도전이 심각하게 일어났다. 그것이 우빠니샤드 운동을 비롯한 여러 종교가 발생한 배경이다. 제사라는 전통을 거부한 새로운 시대의 사상가들은 의례와 관습, 그리고 집단 대신 개인의 지혜를 주장하였다.(이광수, 2013: 78-79)

힌두교의 쇠고기 섭취에 대한 포기과 더불어 오늘날 그들이 채식주의를 왜 가게 되었는지, 또 암소를 숭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힌두교와 불교의 경쟁에서 찾는 사람으로는 인도의 불가촉천민인 달리트의 지도자로 후에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고(故) B. R. 암베드카르(B. R. Ambedkar, 1893-1956)에게서 볼 수 있다. “불가촉천민의 옹호자인 암베드카르는 이런 노선의 생각을 따른다. 그는 쇠고기 식용의 거부가 수백 년간에 걸친 불교도와의 장기간의 투쟁 과정에서 브라만들이 고안해낸 책략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불교는 브라만니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비판자였으며, 소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브라만니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비판자였으며, 소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브라만 종교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암베드카르의 주장에 의하면 브라만들은 소의 희생공양을 포기함으로써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고, 이에 그치지 않고 불교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결국 채식주의자가 되었다.”(Ambedkar, 1948: 116-121.; Simoons, 2005: 199 재인용).

F. 시문스도 “힌두교도의 쇠고기 거부를 설명하기 위해 제출되어온 일련의 설명들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러한 거부가 브라만과 불교도 간의 경쟁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견해를 각별히 부각시킨다. 실제로 하나의 주장은 소를 제물로 삼고 쇠고기를 먹는 관행을 불교도가 비난하자 브라만이 자신들의 도덕적, 정치적 신뢰성을 드높이기 위해 이를 포기했다고 단언한다. 게다가 시문스는 그런 움직임이 인도 문화에서 오랫동안 소를 신성시해온 것에 의해 촉진되었을 것이라고 시사한다.”(Beardsworth and Keil, 2010: 353).

ii) 힌두교 敎理

8) “『숫타니빠따』에 따르면 어떤 늙은 부자 브라만이 제따와나(Jetavana, 기원정사)에 머물던 붓다를 예방하여 그들이 행하던 희생제가 전대부터 이어져온 전통과 들어맞는지 물어본다. 이에 대해 붓다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면서 소가 희생제에서 도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붓다는 그 이유를 『숫타니빠따』의 「브라흐마나담미까숫따」(Brahmanadhammikasutta, 브라만의 삶에 대한 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는 우리 부모나 다른 친척들과 같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소는 우리에게 유제품을 주기도 하지요. 소는 음식을 제공하고, 힘을 주고, 훌륭한 용모를 주며, 건강까지 줍니다. 소에게 이러한 이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소를 죽이지 않은 겁니다.」[『숫타니빠따』의 「브라흐마나담미까숫따」(Brahmanadhammikasutta), 17]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브라만은 암소 죽이는 일을 그만 두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붓다의 제사 반대를 토대로 한 불살생의 여파는 매우 심각하여 나중에 힌두교도 이를 적극 받아들이게 되었다.”(이광수, 2013: 155-156).

교리에서 암소에 대해 가르칠 때에 소를 신성한 동물로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다. 소는 인간과 매우 가까우며, 힌두교의 많은 신들이 바로 신성한 소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힌두교는 모든 존재가 열방을 향한 다양한 단계에 있는 영혼이라고 보고 있다. 악마로부터 소에 이르면 86번의 윤회를 거쳐야 하는데, 한 번 더 윤회하면 인간이 된다. 따라서 암소를 죽인 사람의 영혼은 가장 낮은 단계로 미끄러져 이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게다가 힌두교 신학자에 따르면 암소에는 3억 3000만의 신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정한진, 2012: 19).⁹⁾

힌두 경전에서는 ‘다른 동물의 고기는 내 아들의 살과 같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동물이 신의 일부라고 말한다.(Grant, 2012: 45 재인용)

“흰 소를 타고 다니는 신은 힌두교 신에서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바(Shiva)이다. 인도인들의 재래종 소에 대한 사랑을 종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정혜경·오세영·김미혜·안호진, 2013: 68).

2) 이슬람·유대교: 不潔한 돼지

이슬람과 유대교는 돼지에 대해서 매우 불결한 동물로 생각한다. 앞에서 힌두교에서의 신성해서 소의 식용을 금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슬람과 유대교는 불결하다는 이유로 돼지의 식용을 금지하고 있다. 힌두교에서는 소가 신성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지만, 이슬람과 유대교에서 돼지는 매우 불결한 동물이기에 먹을 수 없게 된다.¹⁰⁾

(1) 돼지의 다른 面貌

영양학적 가치로는 돼지고기가 다른 육고기에 비해 매우 탁월하다고 한다. 먹는 사료의 양에 비해 단백질 공급 등에서 매우 탁월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지적이다.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돼지의 가치는 따라 올 자가 없다. 같은 양의 사료를 먹었을 때 돼지는 9kg의 고기를 생산하고 소는 3kg의 고기를 생산한다. 칼로리 면에서도 소의 3배, 닭의 2배이다. 영양학적 가치로 본다면 어떤 육류도 쫓아올 수 없다는 뜻이다. 속된 말이지만 이슬람 사회의 농담에는 ‘이슬람교도 2명과 돼지고기가 있으면 배 굶아 죽고, 1명이 있으면 배 터져 죽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슬람교인들도 돼지고기 맛을 인정하는 편이다.”(정혜경·오세영·김미혜·안호진, 2013: 72).¹¹⁾

M. 조이(Melanie Joy)는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일까』(Why we love dogs,

9) “힌두교 신지학(神智學)에서는, 한 영혼이 마귀에서 소로 승격되려면, 86번이나 환생을 해야 하지만 소와 인간 사이에는 넘어야 할 간격이 단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 고로 당신의 접시에 올라온 스테이크는 당신의 갓 태어난 아이의 영혼이 머물던 곳인지도 모른다는 얘기가.”(Allen, 2007: 278-279).

10) “텔아비브 북쪽에 있는 네타냐 시의회는 2007년에 돼지고기 판매 금지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켜서 돼지고기에 관대한 러시아 출신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 언론이 돼지고기 전쟁(pork war)이라고 부를 만큼 격렬했다.”(유재덕, 2009: 209).

11) “중동은 돼지사육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아주 맛이 있는 고기로 귀하게 여겨지고 있다.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고 싶은 유혹에 시달린다.”(Harris, 2011: 52).

eat pigs, and wear cows)는 돼지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돼지를 실제로 본 적이 있거나 돼지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서 정말로 돼지가 똑똑하다는 걸 한두 가지 예를 들며 이야기하는 학생도 나오곤 한다) ... 실은 더울 때 몸을 식히느라 진창에서 뒹구는 거야, 땀샘이 없기 때문이지 ... 돼지가 땀투성이도 아니고 게으르지도 탐욕스럽지도 않은 영리하고 예민한 개체라고 생각했다면 돼지에 대해 어떻게 느꼈을까? 개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가깝게 지내서 잘 알았더라면 말이야. 돼지를 먹는 걸 이상하게 느꼈을 거예요. 아마 죄책감 같은 걸 느꼈겠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돼지는 먹고 개는 먹지 않을까? 돼지는 먹기 위해 키우니까요. 왜 먹기 위해 돼지를 키우는 거지? 몰라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원래 그런 것 아닌가요?(Joy, 2011: 29-33).

한 마디로 돼지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돼지의 그러한 행동은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매우 높은 지능의 동물의 행동이라는 것이다. 돼지를 다른 반려동물처럼 키우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다.

(2) 不潔해서 먹을 수 없게 된 돼지

왜 돼지에 대해서 이슬람¹²⁾과 유대교는 금한 것일까? 중동지역에서 왜 돼지고기의 식용이 종교적으로 금지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설명한다. 대표적인 예가 “불결한 돼지”(선모충 旋毛蟲病, trichinosis, Moses Maimonides, 1135-1204. 중세의 랍비이자 의학자), 중동지역, 돼지사육에 “부적합한 환경”(Carlerton Stevens Coon과 Marvin Harris), “신성화와 구별 지음”(Mary Douglas) 등을 들 수 있다.

내[Marvin Harris] 생각으로는 돼지사육이 중동지방의 기본적인 문화와 자연의 생태계의 조화된 통합성을 깨뜨릴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성서와 코란은 돼지를 정죄(定罪)시켰다고 생각한다(Harris, 2011: 48).

12) 이슬람교도들이라고 해서 절대적(絕對的)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이는 理論的으로는 確實하다). 다시 말해 이슬람교도들의 경전인 『꾸란』(Qur'an)에 예외적(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와 죄를 지을 의도 없이 배고픔 때문에 먹는 경우에 한하여)으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진정 알라를 숭배한다면 알라께서 주신 좋은 것을 먹고 감사하라. 죽은 동물, 피, 돼지고기, 알라께 바쳐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육심을 내거나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에는 죄가 아니다. 진정 알라는 관용을 베푸시고 자애로우시도다”(『꾸란』 2: 172-173). “죽은 동물, 피, 돼지고기, 알라께 바쳐지지 않은 것, 목 졸라 죽인 것, 때려죽인 것, 떨어져 죽은 것, 뿔에 찢려 죽은 것, 목숨이 살아 있어 도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야생동물이 먹는 것, 계물로 회생된 것, 점괘로 잡은 것은 금지된다. (...) 그러나 죄를 지을 의도 없이 극심한 배고픔 때문에 먹는 것은 허용한다. 진정 알라는 관용을 베푸시고 자애로우시다.”(『꾸란』 5: 3)(박현도, in 이찬수 외 공저, 2013: 104, 105); 장 후세인은 “돼지고기”를 다만 원칙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만 다루고 있다.(장 후세인, 2013: 177-190. “할랄[Halal: 허용된 것] & 하람[Haram: 금지된 것]” 참조); 엄익란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러나 금지된 음식이더라도 기아의 상태에 생명이 위협할 때(『꾸란』 2:173; 16:115; 6:145), 목숨을 구할 때, 또는 무의식중에 먹었을 때(『꾸란』 2:173; 16:115; 6:145)는 허용하는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엄익란, 2011: 35); “꾸란 네 곳에서 하람 식품이 언급된 후 필요에 의한 예외조항이 언급되고 있다. 이 꾸란 내용에 근거하여 이슬람법학자들은 ‘필요는 제한을 없앤다’라는 중요한 원칙을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하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먹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 말은 먹고 싶기 때문에 먹어서도 안 되고 먹더라도 생명을 구할 정도의 양과 기아의 상태에서 벗어날 정도의 필요한 양만 허용된다는 의미다. 이 조건에서 법학자들은 ‘허용된 양은 단지 필요한 양이다.’라는 다른 원칙을 이끌어 냈다. 어쩔 수 없는 필요에 의해 하람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식욕이나 더 먹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한다. 필요가 충족되면 반드시 할랄 음식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고 하람 음식에 적용되지 않고 또 어떤 것을 구실삼아 하람 음식을 즐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할랄 식품을 구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Al-Qardawi, 2011: 47-48).

더글라스[Mary Douglas]의 오염, 오물, 부정에 대한 논의는 그녀가 구약성서 「레위기」 속의 금기를 분석할 때도 적용된다. 왜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돼지고기를 금했는가?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답변은 돼지가 더럽기 때문이라는 위생학적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관점을 더글라스는 윌리엄 제임스의 용어인, ‘의학적 물질주의’로 거부하면서, 레위기에서 금하는 생물들은 사회가 정한 생물의 범주나 우주론적 계획에 명확하게 맞지 않는 것들임을 상기시킨다. 우주론적 계획이란, 말하자면, 창세기에서 정한 세 범주의 공간에는 거기에 걸 맞는 생물들도 상징 분류된다. 먼저 공중에는 두 다리와 날개를 지닌 새가 거처하며, 다음으로 지상에는 네 다리를 가진 생물이 뛰거나 걷는다. 마지막으로 물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물고기가 존재한다. 만약 네 개의 다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날개가 있다면, 이는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유제분 in Douglas, 1997: 288-289, 유제분, “[부록 A] 메리 더글라스의 오염론과 문화이론”, 283-302. 이 논문은 원래 『현상과 인식』. 20[3]. [1996. 가을. 47-63에 수록되었던 것이다.]¹³⁾

i) 이슬람

이슬람에서 돼지고기를 금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자들의 소개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지금은 한국 이름이 장 후세인으로 귀화한 후세인 크르데미르(Huseyin Kirdemir)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돼지고기 식용을 이슬람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돼지고기 섭취는 여러 질병들을 일으킨다.”, “돼지고기는 지방을 쌓는 물질을 가지고 있다.”, “돼지는 지상에서 가장 불결한 동물들 중의 하나이다.”, “돼지는 가장 수치를 모르는 동물이다.” 즉 돼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수치를 모르는 동물이다. 돼지는 친구들을 초청하여 자기의 짝과 섹스를 하도록 하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이다.(Kirdemir, 2005: 131-134)¹⁴⁾

프리데릭 시몬스(F. Simoons)의 책에는 이슬람에서 돼지고기를 금지한 이유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유대적 율법에 기울어 전반적인 의미에서 유대적 식사율법을 모방하려 했던 예언자 마호메트(Mahomet, 570-632년)는 돼지고기 식용을 금지했다. 코란에서 이런 식으로 특별히 지목된 동물은 돼지가 유일하다. 코란에서는 돼지고기 식용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다.[코란 2:172; 5:3; 6:146; 16:115.] 디너와 롭킨(Diener & Robkin)은 논문에서, 이슬람교에서의 돼지고기 식용 금지 조치는 농민을 통제하고 도시 중심지에 공급할 잉여 농산물을 확보하려는 신흥 이슬람 국가의 노력 때문이라는

13)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는, 『순수와 위험』(Purity and Danger, 1966)에서 레위기(특히 11장)에 등장하는 이러한 동물 분류가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사유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신이 창조한 세계는 하늘과 땅과 물로 나뉘어 있으며 갖가지 동물들도 원래 그 세 범주의 공간에 각각 맞도록 창조되었다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이른바 ‘순수함’의 세계이지요. 그래서 땅(하늘/물)에 속해 있으면서 땅(하늘/물)의 짐승의 성질을 가지지 못한 것은 더럽고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됩니다. 신의 창조 질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하는 동물인 셈이지요. 그러나 그 짐승을 먹거나 그 주검을 만지면 그 더러움이 인간 또한 더럽히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메리 더글라스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음식 금기가 위생적 이유나 윤리적 교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신의 창조 질서에 기초한 ‘순수함’과 ‘더러움’에 대한 관념이 사물의 분류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가 바로 음식 금기라는 것이지요.”(오현석, in 이찬수 외, 2013: 223).

14) 후세인 크르데미르는 장 후세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귀화한 아랍인 최초로 한국에 출판사를 낸 사람이다. “윤알리아(36)는 미국에서 대학원에 다녔다. 유학 2년째를 맞은 9-11테러 직전인 2001년 여름, 윤씨는 무슬림이 되었다. 그는 귀국 후 한국에 유학 온 터키인 크르데미르 후세인(40)을 인터넷 카페에서 만났다. 후세인은 한국인에게 이슬람을 소개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했다. 2006년 윤씨와 후세인은 결혼하였고, 남자는 한국에 귀화했으며 이름을 장후세인으로 바꿨다.”(이정순, 2012: 46 송경화·인수찬, “난 한국인 무슬림이다.” 『한겨레신문』. [2011.05.17], 1면과 4면 참조).

가설을 세웠다(Simoons, 2005: 55).

엄익란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 “종교적 이유 이외에도 아랍 무슬림이 돼지를 오염되고 더러운 동물로 여기며 꺼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위생적 관점에서 돼지는 불결한 짐승으로 인식된다. 돼지는 부패했거나 더러운 것을 먹기 때문이다. 돼지는 심지어 자신의 배설물 또는 다른 동물의 배설물도 먹어 해치운다. 둘째, 도덕적 관점에서 돼지는 타락한 동물로 간주된다. 돼지는 짝을 정하지 않고 난교를 즐긴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슬람교에서 가장 혐오하는 행위이다. 셋째, 의학적 관점에서 돼지의 식용은 금기시된다. 돼지에 기생하는 촌충은 더러운 사막 기후에서 쉽게 설사를 일으키게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돼지는 사막의 유목민이 키우기 힘든 동물이다. 돼지는 피부의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유목민이 돼지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든다, 돼지는 유목민보다는 정착민의 동물인 것이다.”(엄익란, 2011: 57; 박현도, 2013: 107 참조).

ii) 유대교

근동 지방에서의 돼지고기 금지¹⁵⁾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imoons, 2005: 98ff). 특히 유대인들의 음식 율법에서의 돼지고기 금지에 대한 네 가지 설명에 대해 F. 시문스의 책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첫째, 그런 율법은 자의적인 것으로 인간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즉, 여호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그런 율법들은 위생적인 관심, 질병이나 건강을 해치는 위험 때문에 생겨났다. 셋째, 히브리인들에게 음식 율법이란 상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받아들여지는 동물은 올바른 인간 행동을, 금지되는 동물은 최악의 행동을 나타낸다. 넷째, 히브리의 음식 율법은 이방인들의 신앙 관습과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되었다.(Simoons, 2005: 98).¹⁶⁾

정혜경 외 등(2013: 72)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돼지고기 금지 이유를 [그림]으로 잘 정리해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종교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본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의 율법에 있는 “돼지고기를 금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해야할까?”라고 생각해 본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유대인들의 음식 율법

15) 유대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베이컨을 먹음으로써 기독교로 개종한 척한다는 이유로 ‘마라노’(Marrano, ‘돼지 같은’이나 ‘비열한 인간’이라는 뜻인 스페인어로, 유대인에 대한 경멸적인 호칭-역주)로 불리워졌다.(Allen, 2007: 255). 유대인을 비하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유덴자우이다. 유덴자우(Judensau)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유덴(uden)과 암돼지를 의미하는 자우(sau)의 합성어로 ‘유대인 돼지’라는 뜻이다. “유덴자우는 나치 시기에는 ‘자우유트’(Saujud)라는 유대인을 비하하는 욕설로 변형된다. 유덴자우와 같은 의미의 ‘돼지 유대인’이라는 이 욕설은, 결국 유대인을 돼지우리 같은 계토로 이주시키고 강제 수용소로 보냈으며, 끝내는 가스실의 살육장으로 보내 수백만의 ‘짐승들’을 도살하게 했다.”(정한진, 2012: 16).

16) “랍비 에이브러햄 아이작 쿡(Abraham Isaac Kook)은 레위기에서 동물 섭취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육식을 멀리하게 해서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적인 조치라고 해석한다.”(Groppe, 2012: 158).; Kook, Abraham Isaac (1978). *The Lights of Penitence, The Moral Principles, Lights of Holiness, Essays, Letters, and Poems*. New York: Paulist. 317-323 참조.

에서의 돼지고기 금지에 대한 네 가지 설명 중 첫째 이유인 “그런 율법은 자의적인 것으로 인간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답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교에서의 돼지고기 금기는 오늘날 개신교와 가톨릭 등과 자신들의 구별하는 하나의 방도가 될 수 있겠지만 말이다.

그림: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돼지고기 금지 이유

돼지 사육의 이윤이 더 많이 남아 마을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경우 지방자치체로 변할 위험성을 초반에 배제함	정치적 이유	생태 환경 ·자연적 이유	주로 사막에 거주하므로 지사육에 적합하지 않음. 농사를 많이 짓지 않아 곡물이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잡식성 동물인 돼지는 인간과 식량을 공유해야하므로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음.
선모충 감염 위험	위생적 이유	종교적 이유	돼지고기를 식용하는 기독교와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자료: 정혜경·오세영·김미혜·안호진, 2013: 72 그림 약간 수정

오늘날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이 유대인과 기독교인, 또 이슬람교인과 기독교인 간(間)의 음식규제에 관한 구별된 차이점이다. 그러므로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구약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이 정통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슬람에서의 돼지고기의 금지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돼지고기 금지 규정을 이해하는 데 약간의 유익이 있을 것 같다. 인용해 보기로 하겠다.

윤리적, 법적 규범들이 하느님의 권위로부터 유래하는 한 그것들은 추론이나 실리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돼지가 습성상 불결한 동물이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유대교와 이슬람의 법에서 돼지고기가 어째서 금지되고 있는지를 명백하지 않다(냉동술이 발명되기 이전이라 건강상의 이유로 돼지고기가 금지되었던 것이라는 현대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Ernst, 2005: 158-159. 강조는 본 연구자).

또한 돼지고기 금지에 대한 다른 설명들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주장이 맞은 것이라고 과

학적으로 밝혀진다거나, 틀리다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다양한 적용(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학적인 결과들은 단지 하나의 참고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12세기 중세 유대교 랍비이자 의학자였던 모시스 마이모니테스(Moses Maimonides, 1135-1204)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 구약의 율법은 바로 ‘선모충’(旋毛蟲病, trichinosis) 때문이라는 견해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이모니테스의 주장이 19세기 중엽이 되어서야 비로소 밝혀졌다. 즉 돼지고기를 날 것으로 먹으면 선모충병에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과학적 발견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래 선모충이 있으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지 하고 안 먹었을까.” 아니다.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마빈 해리스의 글 속에서 당시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19세기 중엽 돼지고기를 날로 먹었을 경우 선모충병(旋毛蟲病, trichinosis)이 생긴다는 사실이 발견되자, 마이모니테스의 지혜가 정확했음이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혁신적인 유대인들은 성서의 율법이 지니는 합리적 토대를 발견했다고 기뻐하며 즉각 돼지고기 금기를 재해석했다. 돼지고기는 잘 익히면 몸에 해롭지 않다. 그러므로 잘 익혀 먹는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자 전통적인 랍비들은 보다 근본적인 주장을 내세워 자연과학적인 해석을 전면적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야훼가 오로지 자기 백성의 건강만 보호하고자 하셨다면, 돼지고기를 잘 익혀 먹으라 가르치셨을 것이지, 전혀 먹지 말라고 가르치셨을 리가 없다. 야훼의 심중에는 분명히 어떤 중요한 의도-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시됐다.(Harris, 2011: 45).

이와 같이 선모충 병으로 인해 돼지고기를 금지했다는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이끌었다는 점이다. 진보적인 해석을 가지고자 했던 급진적 유대인의 경우에는 “선모충 때문에 신께서 돼지고기를 금지하셨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날 것으로 돼지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위험하니까. 오늘부터 잘 익혀서 먹으면 되겠네요?” 즉 돼지고기에 대해서 식욕이 가능한 것으로 재해석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 보아, 돼지고기 금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은 우리의 호기심 차원의 이해에는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해로는 우리를 인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인간들이 함부로 자신들의 과학적, 의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재해석하려고 할 경우 신의 율법을 적은 책은 ‘한낱 의학 텍스트 중의 하나’(class of minor medical text)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이성범, 2013: 29).

3) 불교: 不殺生(?)

우리는 불교 하면 막연하게 고기는 (절대)안 돼. 불교=채식주의라고만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붓다는 고기를 안 먹었을까? 그리고 그 당시 스님들은 고기와 담을 쌓았을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스님들은 어땠을까? 불교의 음식규제에 대해 살펴보자.

(1) 맨 처음 불교

맨 처음에 불교는 일반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음식에 대해서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다. 다시 말해 처음 불교는 육식의 금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그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도 이는 매우 불가능하였다는 점이다. 데이비드 R. 로이(David R. Loy)는 자신의 책, 『돈, 섹스, 전쟁 그리고 카르마』(Money, Sex, War, Karma)에서 『계본』(戒本, Patimokkha)을 인용하면서 예외적으로 “아픈 비구”에게 육식이 허용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로이는 음식에 대해서 불교가 매우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승려들의 일상생활 규율인 계본(戒本, Patimokkha)에 따르면, ‘기(ghee), 버터, 기름, 꿀, 당밀, 생선, 우유, 응유(curds)는 질 높은 음식이다. 아프지 않은 비구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섭취하는 행위는 참회해야 하는 위법이다.’ 이 구절을 세심하게 봐야 한다. 분명 문제는 식품 자체에 있지 않고, 그런 식품을 구하고 탐닉하게 되면 승려들이 집중해야 하는 일에서 주의를 놓치게 된다는 점에 있다. 재가자들이 그런 식품을 피해야 한다는 말은 없다. 그리고 ‘아프지 않은 비구’라는 자격 규정은 불교가 사안들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승려라도 그 음식들을 섭취하여 이익을 얻을 때가 있는 것이다.(Loy, 2012: 173).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명상심리학과 교수인 김재성도 육식을 금하는 것은 불교의 본래 가르침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붓다의 자비심과 지혜는 육식과 아무 관계없이 항상 충만합니다. 개인적으로 육식을 안 하는 것은 건강상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육식을 금하는 것이 불교의 본래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과 위의 『숫타니파타』의 가르침을 잘 상기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김재성, in 이찬수 외, 2013: 35). 정한진도 같은 맥락의 진술을 한다. 그에 의하면 불교 초기에 승려들은 탁발(托鉢)을 하였기 때문에 음식에 관한 한 이것저것 가릴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준대로 드세요”(준대로 먹겠습니다)였다는 것이다.

“불교 초기에는 모든 승려들이 특별한 거처 없이 산속이나 동굴에서 살면서 탁발을 하여 하루 한 끼만 먹으며 지냈다. 승려를 일컫는 비구(比丘)는 팔리어 ‘비쿠’(bhikkhu)의 음역으로, 음식을 빌어먹는 걸인을 가리킨다. 비구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덕이 있는데, 첫 번째 덕이 바로 개인의 재산을 모으지 않고 걸식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입은 옷조차도 일반 대중들이 입다가 해진 옷을 걸레로 쓰고 그러다 더 이상 걸레로도 쓸 수 없어 버린 천들을 모아 만들었다. 초기 불교의 승려들은 한마디로 집도 절도 없이 탁발로 연명했다. 이 집 저 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며 지냈기 때문에 가리는 음식 없이 무엇이나 먹었다. 따라서 육식을 피하진 않았다.”(정한진, 2012: 76).

오늘날 여전히 달라이 라마도 이따금 건강상의 이유로 육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었으면 한다(Loy, 2012: 175).

(2) 붓다와 돼지고기

불교와 음식에서 대립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붓다가 돼지고기를 먹었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프리데릭 시문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논쟁거리다. 그래서 시문스는 부처가 돼지고기를 먹고 죽은 이

야기에 대한 것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Simoons, 2005: 79)고 밝힌다.

문제의 음식[수카라마다바 sukara-maddava: 수카라 sukara=돼지와 관계되는 것]이 돼지고기조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돼지들이 아주 좋아하는 다른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다. ... 와슨[R. Gordon Wasson]¹⁷⁾은 이 음식을 땅 속의 버섯류로 생각한다(Simoons, 2005: 473; 2장 285번 미주).

그렇지만 뒤 문장에서 계속해서 시문스는 돼지고기와 붓다에 대한 증거(典據)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또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야생 돼지든, 길들인 것이든 사육 돼지든 상관없이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불교의 자타카(Jatakas, 기원전 450년경 팔리어로 씌어진 고대인도의 설화집, [Jatakas, 50; 186; 283; 388; 541; 544.]) 기록에서 짐작할 수 있다.”(Simoons, 2005: 79). 데이비드 R. 로이는 붓다가 돼지고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초기불교 공동체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기록 곧, 『대반열반경』에는 붓다가 돼지고기를 먹어서 발생한 또는 악화된 위장병으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다. 불교 채식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종종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 기록은 우리가 초기불교 공동체에 대하여 아는 것과 일치한다.”(Loy, 2012: 173-174). 이광수 교수도 불교와 붓다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는 “중도적 합리주의”(이광수, 2013: 173)를 지적하면서 같은 지적을 한다. “붓다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다. 자신은 음식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바치기 위해 살생하는 것 또한 거부했다. 하지만 사회에서 이미 다른 용도, 즉 힌두교의 제사에 사용하기 위해 살생한 동물은 음식으로 받아들였다. 사회에 남아 힌두교 테두리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진심을 배려한 것이다. 붓다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취한 음식이 돼지고기였다는 것은 기록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후대의 불교도가 별의별 논리를 들어 붓다의 마지막 음식이 돼지고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붓다를 자신들이 하는 채식주의자의 교조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붓다의 중도에 대한 모독일 뿐이다.”(이광수, 2013: 172).

(3) 음식에 대한 다양성을 지닌 불교

(i) 채식을 선호한 대승불교

6세기에 중국 불교(상좌부불교와는 달리)가 채식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흐름은 당시 한국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결과 중국과 한국의 스님들은 고기와 생선 종종 낙농제품과 수정란도 금하게 되었다고 한다. 10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채식주의가 중국의 모든 비구와 비구니가 따라야 할 최소 기준이 되었다(Loy, 2012: 176). 불교에서의 이러한 음식에 관한 태도는 대승불교¹⁸⁾에서 일반적으로 채식을 강조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한다.

17) 이 논쟁에 관해 더 알고 싶으면 R. Gordon Wasson, "The Last Meat of the Buddha,"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02. (1982), 591-603을 볼 것.

18) 개인주의적이거나 수도적인 소승불교(hinayana), 구원적이거나 우주적인 대승불교(Mahayana), 또는 종말론적인 금강불교(Vajrayanayana)다.

채식에 대한 관심은 특히 중국에서 강하고, 『능가경』, 『수능엄경』, 『법망경』과 같이 잘 알려진 대승경전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 경전에는 육식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다.

- 붓다가 금했다(『능가경』)
- 어떤 생명도 살생하지 말라는 불교의 첫 계율에 부합하지 않는다.
- 입 냄새와 더러운 냄새를 풍겨 다른 생명이 주춤거리게 한다.
- 자비를 막고 동물들에게 고통을 초래한다.
- 불교 수행을 더디게 하고 악업을 만든다.(예를 들면 당신은 저급한 동물로 태어날 수 있다)
- 전생의 친척을 먹음지도 모른다(Loy, 2012: 175).

(ii) 음식에 대해 다양성을 보이는 불교

음식에 대한 규제는 지역마다 다양성 모습을 보인다. 불교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마빈 해리스(Marvin Harris)는 불교의 다양한 식습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티베트, 스리랑카, 미얀마, 타이의 불교 승려들은 유제품은 물론 고기도 먹는다. 보통의 불교도들은 고기와 생선을 마음껏 먹으며 생태학적인 조건상 젓소를 기를 수 없는 곳에서는 더욱더 많이 먹는다.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의 불교도들은 굉장한 생선애호가들로, 그들은 생선을 회를 치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젓을 담아서 먹는다. 타이의 불교도들은 생선 외에도 돼지고기, 물소고기, 쇠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누에, 달팽이, 게, 새우를 많이 먹는다. 우기가 되면 그들은 개구리를 잡아먹는데, 일주일마다 한 파운드는 먹는다. 캄보디아의 불교도들은 생선, 새우, 개구리, 홍합, 털거미 종류를 잡아먹는데 털거미는 별미로 꼽힌다. 불교의 종교적 원리는 유연하다. 기독교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은 높은 이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를 회피한다. 징기스칸과 그의 몽고 불교도 무리를 보라. 그는 칼로 살다가 칼로 죽었을 뿐 아니라 양고기와 말고기의 굉장한 애호가였다.”(Harris, 2010: 26-27).

4) 기독교: 가리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健德

(1) 원칙: 가리지 말고 먹어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 한마디로 계시는 점진성(啓示의 漸進性)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구약은 신약에 의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약의 레위기와 신명기 등에 나온 음식에 대한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해석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제정자(制定者)이요, 완성자(完成者)가 되시기 때문이다. 구약의 율법은 그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돼지고기에 대한 것이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논쟁거리가 될 것도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건강상의 문제와 다른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 중요한 하나의 논쟁거리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현대인의 육류섭취의 증가와 더불어서 그로 인한 비만과 각종 성인병의 발생과 더불어, 웰빙에 대한 관심의 증대, 그리고 더 다양한 종교를 접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건강식(健康食,

Halal, Kosher, 寺刹飲食 등)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인해서 돼지고기의 식용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건강상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다 하고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종교적으로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종교의 설명을 기독교 안으로 미묘하게 끼집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논리는 전혀 知的이지도 않을뿐더러, 전혀 聖經的이지도 않는데도 말이다).

기독교의 경우 오늘날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들이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라는 수사학적(修辭學的, rhetorical) 표현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TV나 강의에 나와서 먹을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강의와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은 혼동을 일으킨다. 또 구약(구약의 율법)만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말이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건강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사실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에 불안의식이 다른 이들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더욱 더 그들의 가르침에 혹(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볼 때 최 훈 교수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매우 유의미하다.(최 훈 교수는 안식일교[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개신교라도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의 개신교도들은 실질적으로[de facto] 그들을 개신교에 포함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개신교에도 일상적인 채식을 권장하는 교파들이 있는데 보통 ‘안식교’라 부르는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그런 교회이다. 이 교회는 이슬람교나 유대교처럼 돼지고기를 금하는데, 이유는 구약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다. 안식일교회는 몸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술, 담배, 커피 등의 자극적인 음식을 금하고 채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삼육두유’가 바로 우리나라 안식일교회가 만드는 것으로, 이 교회는 채식식당도 여러 곳을 열고 교단이 운영하는 대학에도 채식 식당이 있다. 아침에 먹는 시리얼 상표로 유명한 ‘켈로그’도 이 교회 초기 개척자의 한 명인 존 하비 켈로그(John Harvey Kellogg)가 개발한 것이다. 1990 년대에 유명했던 이상구 박사를 기억할 것이다. 재미 의사인 이상구 박사는 국내 TV에 자주 출연, 새로운 건강법을 소개해서 선풍을 일으켰다. ‘뉴스타트 운동’이라 부른 그 건강법의 요체는 채식이었는데, 그도 알고 보면 안식일교회 신자이다(최 훈, 2012: 62).¹⁹⁾

바울의 제사음식에 대한 가르침을 본다면 먹을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만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바울은 제사음식 즉 우상의 제물에 대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았는데,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우상의 제물에 관한 편지의 내용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단초(端初)를 얻을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ton eidolothuton; τῶν εἰδολοθυτων)에 대해 다루고 있다.(Prior, 1999: 187-200. 특히 “8. 자유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민감함[고린도전서8:1-13] 참조). 당시 고린도교회의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방 종교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들이 일반인들에게 시장에서 팔렸는데, 이 우상제물을 음식으로 먹어도 되느냐는 것이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전반적(全般的)으로 자유를 찬성한다는 점(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절대적인 자유함, 고전

19) “1980년대 말 한국을 강타했던 이상구 박사의 채식주의 신드롬에는 그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이며, 그의 채식주의 배경에는 이 컬트집단의 채식 신학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신드롬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채식의 추억이다.”(윤철민, 2013: 90).

8:8, 9:19, 10:29)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양심이 덜 강한 형제(“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고전8:13])가 있는 경우에 한(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우상에게 드린 제사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먹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믿음이 연약(軟弱)한 지체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자유함을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제사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스스로 제사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자제(自制)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1-16절에서 안디옥에서의 베드로 사도와의 바울 사도와의 충돌에 대한 기록에서 다 시금 확인할 수 있다.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와의 충돌의 중심에는 바로 “[이방인들과의] 먹는 것”(갈 2:12 NIV. he[Peter] used to eat with the Gentiles)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베드로 사도는 야고보로부터 온 자들이 이르기 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아마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듯이] 물러갔던 것이다. 베드로의 행동은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하였던 것이었다. 아무렇지도 않는 것에 목숨은 건 바울은 좀생이었을까? 좀생이가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왜 바울은 [열을 올리며] 베드로를 책망했을까? 바울 자신보다 더 연장자이면서도, 당시 교회의 중심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그것도 면전(面前)에서(갈2:11. NIV, I opposed him to his face. KJV. withstood).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다.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율법주의자(할레주의자, 또는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이들)들이 온다고 해서 마치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피한 행동에 대해서 비난한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음식에 대한 율법에 메인 베드로의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신칭의 교리(以信稱義 教理, 갈2:16. NIV. KJV. by faith in Jesus Christ)를 부인하는 행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의롭다함이 음식 규율과 같은 율법의 준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갈2:16 참조). 그런데 베드로의 행위는 그러한 진리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구원을 위해, 신앙을 위해, 율법을 위해, 믿음을 위해 음식을 가려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 그리스도의 의롭다하심을 부인하는 행위와 같은 맥락일 수 있다는 것이다(Stott, 1994: 56-67 참조).

(2) 그러나 덕을 세워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제사음식을 먹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自由)라고 했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다른 형제의 믿음을 허물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날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구약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라고 하면 그 형제의 믿음을 위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덕을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안 먹어야지 하면서 먹지 말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의 정통기독교인들의 돼지고기를 식용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들도 자신들의 이웃인 그리스도인들이 돼지고기 식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 아니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통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날 상황은 바울 당시의 상황과는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는 정통 그리스도인이요.”라고 주장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반대로, 저 사람은 정통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벼? 혹시 안식일교? 아니면 유대교도가 아니란가? ….”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변화된 환경에서 먹을거리(음식)를 통해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엇인가. 음식 즉 먹을거리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날 먹을거리가 단순히 먹을거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건강(보건과 기아)과 환경(기후변화) 그리고 경제(불평등)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음식에 대한 소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개인의 건강과 지역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환경에 이바지 하고, 경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음식소비를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적게 먹는 것(Eat less), 육고기 소비 등을 줄이는 것(Meat Less), 지역 먹을거리를 애용하는 것(Local food), 할 수 없이 먼-거리(global food)의 식품을 사용할 때에는 공정한 무역을 통해(fair trade) 수입된 음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 외에도 돌핀프리(dolphin-free) 된 참치와 같은 생선 등을 소비한다든지 등.

2 飲食規制와 宗教性格, 그리고 動物權

1) 敎理的 가르침

앞서 음식규제와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종교들이 음식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그들의 교리적 가르침과 매우 관련성이 있다. 인도의 종교 즉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자이나교²⁰⁾의 경우, 불살생(ahimsa=a+himsa[死])과 업(業, karma)과 같은 윤회(輪回)에 관한 교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 “이들[불교와 자이나교]은 사회적으로 브라만 계급의 독점적 위치에 반발하고 그들을 증심축으로 하는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종교 사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하나는 베다 종교의 사회중심 전통은 유지하되 제사보다는 명상과 수행 등 정신적 면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사회에서 완전히 벗어나 철저히 수행에만 몰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힌두교를 혁신화하는 뜻이고, 후자는 힌두교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자는 뜻이다. 우빠니샤드는 전자에 속하고 불교나 자이나교는 후자에 속한다.”(이광수, 2013: 70-71).; 불살생주의에 대해서 인도의 3대 종교, 즉 힌두교·불교·자이나교의 입장을 간명하게 요약하여 말하면 다음과 같다. 힌두교에서는 죽이기도 하고 먹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죽이지는 않으나 먹기는 한다. 자이나교에서는 죽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 물론 이와 같은 단언에는 반론이 따를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이면에는 자이나교의 수행법이 매우 엄격하고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뜻도 가미되어 있다.(김미숙, 2013: 279).

자이나교, 힌두교, 불교는 살아 있는 생명체는 근본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모든 생명체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순환 속에 존재하며 여러 가지 형태로 환생할 수 있다. 동물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고, 인간이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인간과 동물 간에는 영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이나교, 힌두교, 불교에서는 동물에 대한 자비를 강조한다.(Grant, 2012: 43)

불교가 육식을 금지하는 것도 역시 업[業]때문이다. 범정 『홀로 사는 즐거움』에서 이렇게 말한다.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를 먹을 때 고기와 더불어 그 짐승의 업까지도 함께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 짐승의 버릇과 체질과 질병, 그리고 그 짐승이 사육자들에 의해 비정하게 다루어질 때의 억울함과 분노와 살해될 때의 고통과 원한까지도 함께 먹지 않을 수 없다.’(최 훈, 2012: 57-58 재인용).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경우도 그들의 종교적 가르침(교리) 때문에 음식에 대한 규제를 가진다. 이들이 할랄(Halal)을 지키고, 코셔(Kosher)를 지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임의적으로 지키면 되고 말고가 아니라, 꼭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인 것이다. 이러한 규율의 준수는 그들의 내세(來世)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종교의 경우는 어떻게? 음식의 규율에 있어서 큰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작고 세밀(細密)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종교 내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새로운 먹을거리가 나올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안이 병병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오늘날 유전자 조작이 심해지고, 또 ‘세계먹을거리체계’(global food system)에서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떠한 유통과정을 통해 우리 손에 오는지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정보의 비대칭)에는 더욱 더 그럴 것이다. 이 국적 불분명의, 또 정체불분명의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지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그 식품(먹을거리)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아니다. 비록 할랄 인증이 있고, 코셔 인증이 있지만, 직접 재배하고 만들지 않는 이상 음식의 재료 선택과 조리 과정을 100%로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불쑥불쑥 터져 나오는 먹을거리 문제의 경우 더욱더 그 불안감은 깊기만 할 것이다.(송호재, “가짜 ‘할랄 푸드’ 가공·판매한 업체 잇따라 적발” <노컷뉴스> (2015.05.06); <http://v.media.daum.net/v/20150506190611209?f=o> 참조.)²¹⁾

어류의 경우 이슬람교의 내부에서도 각 학파(學派)에 따라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익란은 다음을 소개한다.

“식용 가능한 어류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슬람교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이슬람교의 4대 법학파 중 한발리(Hanbali)와 샤푸(Shafii) 학파는 바다에 사는 모든 동물을 할랄로 본다. 따라서 조개, 새우, 바닷가재, 상어 등과 모든 어류는 먹을 수 있다고 한다. 말리키(Maliki) 학파는 장어를 제외한 모든 어류와 바다동물을 먹을 수 있다고 본다. 하나피(Hanafo) 학파는 음식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21)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무슬림 채식주의자들이 조심스럽게 표면으로 등장하고 있다. 채식주의에 대한 논쟁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터키, 이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의 무슬림으로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친다. ‘이슬람교에서 피는 금지된 것이다. 그런데 살에서 피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러니 고기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다’”(Richard C. Foltz, 2006: 11.; 엄익란, 2011: 65 재인용).

입장이다. 하나피 학파는 어류만을 허용하고, 조개, 새우, 바닷가재 등을 먹는 것은 모두 금지한다. 단, 상어는 허용한다. 그 형태가 어류와 같기 때문이다.”(엄익란, 2011: 38-39).

각 학파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누구의 말을 좇아야 하는가? 데이비드 R. 로이가 언급하고 있는 다음의 경우는 또 어떠해야 하는가? “언젠가 중국불교 포커스 그룹(회원 중에 몇 사람이나 불교신자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내부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불교 친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 [친구가] 물고기 유전자가 들어 있는 토마토 먹기를 많이 힘들어해요. 그 행위가 친구가 하는 수행에 반하기 때문이에요. 친구는 물고기 유전자를 토마토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만하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중요시하는 동물에서 식물로의 유전자 전이는 채식주의자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Loy, 2012: 180).

2) 自力宗教와 他力宗教

음식에 대한 규제는 그 종교가 타력종교인가 아니면 자력종교인가를 나타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거나, 스스로 신성화되고자 하는 자력종교는 음식에 대한 규제에 매우 엄격하다. 음식에 대한 규제의 준수는 바로 자신의 영성과 관계되어 있다. 육식을 멀리하는 것은 바로 육욕을 멀리하는 것이 되고, 세속과 거리는 두는 것으로 영계(靈界)에 더욱 더 가까이 가는 것으로서 더욱 신성에 다가가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종교는 먹는 것의 통제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순결함의 길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점이다. “고기의 자제=영성=순결=금욕=성화=신성에 가까이 감”으로 도식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멀리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 매우 까탈스러운 것이다. 불교와 힌두교, 자니아교에서 윤회를 깰 수 있는 길의 하나로 바로 음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유대교와 이슬람에서의 구원은 바로 율법과 계율의 준수에 있다. 그 계율의 범위에 먹을 것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음식에 대한 규율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규율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메시아는 율법의 완성자이시다.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속(救贖)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영접을 통해 우리는 그가 이룩하신 모든 것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기독교는 타력종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음식에 대한 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력종교에서의 음식에 대한 규율의 위반(필연적으로 위반할 수 없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다)은 죄의식에 빠지게 하고, 영적인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화의 논리에 걸려들게 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에 헤엄치게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음식에 대한 규제를 구원(신성화)의 조건으로 이해하는 이들은 음식에 관한 종교의 규례를 자기기만

과 자기만족적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해석을 유도하게 된다. 정혜경·오세영·김미혜·안호진 등(2013: 53)은 이를 ‘유연한 인식’이라고 붙이고 있다. “힌두교에서는 생선을 죽여 먹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꺼내어 먹는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식품 섭취 허용에 위한 유연한 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 이슬람교에서는 다른 족(族)이 도축한 고기를 사다가 먹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예는 기본적 종교이념과는 배치되는 것이지만, 금지식품의 섭취를 허용하는 것은 인간 사고의 유연성을 보여준다.”(정혜경·오세영·김미혜·안호진, 2013: 53).

불교국가 태국에서 마을사람들은 돼지를 도살하여 판매하는 중국 상인들에게 돼지를 판다. 유사하게 태국 마을사람들-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생선은 중요한 부가물이다-은 자신들이 실제로 물고기를 죽이지 않고 단지 물고기를 물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고 주장한다.(Lowenberg, Todhunter, Wilson, Savage and Lubowski, 1974: 226; Beardsworth and Keil, 2010: 271-272 재인용).

현대의 힌두 인도농민들은 원치 않는 동물을 제거하기 위해 또 하나의 수단을 쓴다. 그들이 이를 이슬람 상인들에게 판다. 이슬람 상인들은 이 동물을 마을에서 가져가 지역시장에 되판다. 이 동물들 중 다수는 결국 합법적으로 도살되거나 종교상으로 이런 행동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도살업 독점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도살된다. 이슬람인, 기독교인, 그리고 하위 카스트의 힌두교도들이 쇠고기라 표시되어 있거나 이슬람교도와 그들의 힌두 고객들과 이웃들 간의 평화를 위해 아무데나 붙이는 ‘양고기’ 표시가 붙은 쇠고기를 엄청나게 구입한다(Harris, 2010: 68; Harris, 2011: 38 참조).

불교도들은 성장함에 따라 동물을 죽이지 말라는 금기를 지키는 데 대해 큰 걱정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다른 누군가가 이 더러운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타이와 미얀마에서는 진실로 턱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달걀을 깨서는 안 된다. 가게주인들은 ‘우연히’ 깨진 달걀을 계속 공급함으로써 이 규제를 벗어난다. 부유한 불교도들은 하인들을 시켜 계란을 계속 깨도록 한다. 주인은 자신이 깨지 않았으므로 죄를 피하고 하인은 명령을 받아 한 일이므로 죄를 면한다.(Harris, 2010: 27).

3) 음식규제와 動物權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종교의 음식에 대한 규제가 바로 동물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물론 이론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말이다. 윤희철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게 된다. 인간의 언제나 동물로 태어날 수 있고, 동물도 또한 인간으로 언제든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가 가르치는 이러한 가르침을 현실적으로도 잘 준수한다면 어느 정도 동물권을 보호할 수는 있을 것이다. 허남결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오늘 아침 웬지 기분이 뒤틀려 신경질적으로 밭길질을 해댄 강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일 수도 있으며, 한 세대 뒤 귀여운 내 손자의 간식거리가 된 프라이드치킨은 바로 오늘의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유의 윤리적 함의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과 동물 등 갖가지 형태의 몸으로 바꾸어 태어나면서 이 세상과 저세상을 끊임없이 오가는 윤희 전생의 삶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을 포함한 일체 만물, 곧 윤희체가 지닌 본질적 가치에 대해 새삼 윤리적 반성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불교 윤리에서 말하는 업과 윤희철은 동물권리 논의에서도 함축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 윤희철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존재는 동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그 역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허남결, in 박상언, 2014: 256).

문제는 현실의 적용에 있어서 이러한 종교적 가르침이 이상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힌두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신성한 소로 숭배 받고 있는 이들 소의 현실은 어떠한가? 인도의 신성한 암소들은 인도의 현실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 “인도인이 쇠고기를 먹지 않고 소를 숭배한다고 하여 인도가 소의 천국은 아니다. 우리들은 인도의 도시와 농촌에 체류하면서 현지 조사를 수행한 바 있기 때문에, 인도의 소가 얼마나 철저히 인도인들에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김경학·이광수, 2006: 13) 그러면서 김경학 교수와 이광수 교수가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쟁기질을 하면서 소를 학대하는 것을 언급한다. “쟁기질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황소의 양 엉덩이에 나 있는 상처를 보고 싶노라면, 과연 이 나라가 소를 숭배하는 나라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쟁기질을 하는 농부는 쟁기를 끄는 황소의 방향지시를 위해 끝에 작은 못을 박은 긴 나무 막대기를 사용한다. 이 뾰족한 못을 소의 엉덩이에 찔러대면서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보니, 농사에 오랜 세월 동원된 황소의 엉덩이 가죽은 늘 상처투성이다. 그나마 쟁기질용으로 동원되는 황소는 살려둘 가치가 있는 편이다.”(김경학·이광수, 2006: 13-14).

마빈 해리스는 직설적으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한다. “사실 힌두교의 암소숭배 관습은 저축과 절약을 미덕으로 삼는 서양의 프로테스탄트 경제윤리보다 훨씬 탁월한 경제성을 보여주고 있다.”(Harris, 2011: 35) 인도에서의 소에 대한 대우는 현실적으로 철저히 경제윤리에 입각해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송아지를 제거할 때에도 매우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거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직접 죽이면 안 되니까(어떻게 신성한 소를 자신의 손으로 제거할 수 있단 말인가), 어미 소로 하여금 송아지를 죽이게끔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늙은 소의 경우에는 고삐를 짧게 매어둠으로서 아사(餓死)하게 한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도살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여러 방법이 동원되어 소들이 죽어가고 있다. 예컨대 원치 않는 송아지들을 ‘죽이는’ 방법으로는, 삼각의 나무명예를 송아지 목에 맨다. 그 송아지들이 젖을 먹으려 하면 자연히 그 명예가 암소의 젖통을 찌르게 되고 그 결과 암소는 발길질을 하여, 송아지는 거기에 채여 죽게 된다. 늙은 암소는 고삐의 길이를 짧게 매어두기만 하면 굶어죽는다. 굶어죽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Harris, 2011: 38). 심지어 자신들에게 필요지 않는 어린 송아지를 제거할 때에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송아지가 죽을 때까지 이용한다는 것이다. “굶기는 것은 불필요한 동물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비효율적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소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소 주인에게 확실히 이익이 된다. 인도 소의 대부분은 젖소 종자가 아니기 때문에 송아지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는 한 우유가 나오지 않는다. 농부는 원하지 않는 송아지를 반기아[半飢餓] 상태로 놔둠으로써 비용은 최소화하고 어미 소의 우유생산은 최대화하는 것이다.”(Harris, 2010: 67-68).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도록 어미 소를 착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집집마다 끌고 다니며 우유를 짜내어 파는 암소주인은 박제로 만든 가짜 송아지를 옆에 세워, 암소를 기만하여 젖이 나오게 하는 계락을 쓰기도 한다. 이 방법이 효력이 없을 경우, 소주인은 ‘푸카’(phooka)라는 방법을 쓴다. ‘푸카’는 구멍이 뚫린 파이프로 암소의 자궁에 바람을 불어넣어 젖을 내는 방법이다.

혹은 ‘뚝 데브’(doom dev)라는 방법도 있다. 뚝 데브는 소의 꼬리를 음문 속에 집어넣어 젖을 내는 방법이다. 간디는 인도에서처럼 암소를 그토록 혹사하는 곳은,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Harris, 2011: 35-36).

이슬람교 유대교의 도살법은 동물에게 유익한가? 물론 이론적으로는 다른 도살법에 비해서 윤리적이며 어느 정도 동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종교가 지닌 정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이 또한 지적되기도 한다. 수의 전문가(獸醫專門家)들은 “동물의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도살하면 극심한 고통을 수분 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한다 (<http://v.media.daum.net/v/20110615045003694?f=o>) 이런 이유 때문에 네덜란드에서는 종교적 도축법 금지 법안이 승인되기에 이른 것이다. 즉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기절시키거나 마취시켜 의식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종교적 도축의 경우에 한해서 과거에는 면제시켜 주었으나 이번 종교적 도축법 금지 법안의 승인으로 말미암아 종교적 도살에서의 면제 조항을 폐지하도록 한 것이다. (“[오늘의 월드뉴스-단신] 네덜란드 하원, 종교적 도축법 금지 법안 승인” <OBS뉴스> (2011.06.29);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7540>).

III 나가면서

1 음식규제는 종교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

음식규제는 종교의 성격 즉, 그 종교가 자력종교인가 아니면 타력종교인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자력종교는 음식에 대한 강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메시야가 도래하지 않는 종교는 음식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음식 규범에 대한 준수는 스스로 신성에 이르는 길이며, 영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힌두교는 원래 브라만 계통들은 쇠고기를 섭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경제적·종교적 요인에 의해 쇠고기 섭취를 금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제사를 금지하는 불교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브라만 스스로 쇠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했다는 점이다. 이슬람·유대교의 경우도 할랄과 코셔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 금지하고 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정치적·상태환경적·위생적·종교적 이유 등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음식의 규제에 대한 규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들 종교가 자력종교이기 때문일 것이다. 불교의 경우도 맨 처음 불교(초기 불교)의 음식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심지어 붓다의 사망 원인에는 돼지고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 채식이 선호하게 되었다. 지역마다 환경마다 음식에 대해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독교는 자력종교가 아닌 타력종교이기 때문에 음식 규제에 대해 자유롭다. 메시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음식에 대한 율법은 완성되었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음식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을 구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으로 음식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고 먹게

되었다. 다만 덕을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먹을거리가 단순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와 보건, 경제(기아)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먹을거리에 대한 선택과 소비에 있어서 건덕(建德)이 필요한 것이다.

2) 종교의 음식규제가 삶 속에서 잘 실천될 때에 동물권에 유의

종교적 음식 규제가 삶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경우야 비로소 동물권 보호에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다. 만약 종교적 규정과 관계없이 행해질 때에는 반대로 종교가 의도하지도 않게 동물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정신을 잘 살피는 가운데 각 종교들의 정신에 맞게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 구정은·김세훈·손제민·남지원·정대연 (2016). 『지구의 밥상』. 파주: 글항아리.
- 김미숙 (2013). 『인도 불교와 자이나교』. 서울: 씨아이알
- 김재성, “붓다는 무엇을 먹었나?”. 이찬수 외. 『식탁의 영성』. 서울: 도서출판모시는사람들. 27-40.
- 김종덕 (2012). 『음식문맹자, 음식시민을 만나다』. 서울: 따비.
- 김경학·이광수 (2006). 『암소와 갠지스』. 부산: 산지니.
- 박현도 (2013). “알라의 이름으로: 이슬람 음식 문화 속의 지혜”. 이찬수 외 15인 공저. 『식탁의 영성』. 서울: 도서출판모시는사람들. 101-118.
- 엄익란 (2011). 『할랄, 신이 허락한 음식만 먹는다: 아랍음식과 문화코드 탐험』. 파주: 한울.
- 오현석 (2013). “술 마시면 지옥? 복날에 개고기는 미신?: 한국 초기 그리스도교인의 음식 금기”. 이찬수 외 15인 공저. 『식탁의 영성』. 서울: 도서출판모시는사람들. 207-228.
- 유재덕 (2009). 『맛있는 성경이야기: 예수와 함께하는 식탁』. 서울: 강길은평화.
- 윤철민 (2013). 『개혁신학 vs. 창조과학: 개혁신학으로 본 창조과학의 신학적 문제』. 서울: CLC.
- 이광수 (2013). 『슬픈 붓다』. 파주: 21세기북스
- 이성범 (2013). 『음식과 언어: 식문화에 대한대조언어학적 연구』.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 이정순 (2012). 『21세기 한국 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서울: 대서.
- 정한진 (2012). 『왜 그 음식은 먹지 않을까』. 초판3쇄. 파주: 살림.
- 정혜경·오세영·김미혜·안호진 (2013). 『식생활 문화』. 파주: 교문사.
- 최 훈 (2012).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 고양: 사월의책.
- 허남걸 (2014). “서양윤리의 동물권리 논의와 불교생명윤리의 입장: ‘동물개체의 도덕적 권리’를 중심으로”. 박상언 엮음. 『종교와 동물 그리고 윤리적 성찰』. 서울: 모시는사람들. 253-294.
- Allen, Stewart Lee (2002). *In the Devil's Garden*. Ballantine. 정미나 역 (2007). 『악마의 정원에서』. 초판8쇄. 서울: 생각의나무.
- Al-Qardawi, Yusuf (n.d). *Halal & Haram in Islam*. 최영길 역 (2011). 『이슬람의 허용과 금기』. 서울: 세창출판사.
- Beardsworth, Alan and Teresa Keil (1997). *Sociology on the Menu*.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박형신·정현주 공역 (2010). 『메뉴의 사회학』. 파주: 한울.
- Groppe, Elizabeth T. (2011). *Eating and Drinking*.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홍병룡 역 (2012). 『먹고 마시기: 모두를 위한 매일의 잔치』. 서울: 포이에마.
- Douglas, Mary (1979).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the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Routledge & Kegan Paul. 유재분·이훈상 공역 (1997). 『순수와 위험』. 현대미학사.
- Ernst, Carl W. (2003). *Following Muhammad: Rethinking Islam in the contemporary World*.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최형묵 역 (2005). 『무함마드를 따라서: 21세기에 이슬람 다시 보기』. 서울: 심산.
- Grant, Catharine (2006). *The No-nonsense Guide to Animal Rights*. New International Publication Ltd. 황성원 역 (2012). 『동물권, 인간의 이기심은 어디까지인가?』. 서울: 이후.
- Harris, Marvin (1975). *Cows, Pigs, Wars and Witches: The Riddles of Culture*. 박종렬 역 (2011). 『문화의 수수께끼』. 제1판27쇄. 파주: 한길사.
- Harris, Marvin (1985). *The Sacred Cow and the Abominable Pig: Riddles of Food and Culture*. Simon & Schuster. 서진영 역 (2010). 『음식문화의 수수께끼』. 파주: 한길사.
- Jha, D. N. (2003). *The Myth of the Holy Cow*. Verso. 이광수 역 (2004). 『인도 민족주의의 역사 만들기: 성스러운 암소 신화』. 서울: 푸른역사.
- Joy, Melanie (2010). *Why we love dogs, eat pigs, and wear cows: An introduction to carnism*. 노순옥 역 (2011).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모멘토.
- Kirdemir, Huseyin (2005). *Answer to Korean 33 Most Common Questions About Islam*. 이형주 역 (2005). 『한국인들이 이슬람에 대해 궁금해 하는 33가지』. 서울: 아담출판사.

- Loy, David R. (2008). *Money, Sex, War, Karma*. 허우성 역 (2012). 『돈, 섹스, 전쟁 그리고 카르마』. 서울: 불광출판사. 7장. “유전자 변형식품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 171-190.
- Morreal, John & Tamara Sonn (2014). *50 Great Myths About Religions*. John Wiley & Sons. 이종훈 역 (2015).. 『신자들도 모르는 종교에 관한 50가지 오해』. 서울: 휴
- Simoons, F. J. (1994). *Eat Not This Flesh: Food avoidances from prehistory to the present*.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김병화 역 (2005). 『이 고기는 먹지 말라?』. 파주: 돌베개.
- Velten, Hannah (2010). *Milk: A Global History*. London: Reaktion Books. 강경이 역 (2012). 『밀크의 지구사』. 서울: 휴머니스트

[간접인용]

- Achaya, K. T. (1999). *A Historical Dictionary of Indian Food*.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Agrawala, V. S. (1963). *India as Known to Panini*. 2nd edn. Varanasi: Prithvi Prakashan.
- Ambedkar, B. R. (1948). *The Untouchables*. New Delhi: Amrit Book Company.
- Brown, W. N. (1957). "The sanctity of the cow in Hinduism," *Madras University Journal* 28. 29-49.
- Basham, A. L. (1996). *The Wonder That Was India, 27th Impression*. Rupa & Co.
- Foltz, Richard C. (2006), *Animals in Islamic Tradition and Muslim Culture*. One World.
- Harris, Marvin (1966). "The Cultural Ecology of India's Sacred Cattle," *Current Anthropology*. 7. 51-66.
- Lowenberg, M. E., Todhunter, E. N., Wilson, E. D., Savage, J. R., and J. L. Lubowski (1974). *Food and Man*. 2nd edn. New York: John Wiley & Sons.

음식규제와 종교 -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를 중심으로의 대한 논찬

최성호

본 논문은 음식에 대하여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저자는 불교와 힌두교를 꽤 비중 있게 다루는데 제목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독교가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룬다. 또한 음식에 대한 종교의 규정이 종교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며, 이러한 규정들이 동물권 (Animal Rights) 등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목표로 삼는다. 서론에서 이미 결론을 암시하는데 구약의 음식에 대한 규례의 준수를 강조하는 종교들은 메시아 (God Incarnate)이 존재하지 않은 결과로 미루어볼 때 메시아 신앙이 없는 종교들은 스스로 구원과 신성에 이를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음식에 대한 규제를 준수한다는 것이다.

힌두교, 불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음식규정들은 구체적인 교리적 근원보다 사회적 요인이 더 컸다는 주장을 편다. 예를 들어,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을 당시 간디는 암소보호를 정치적 전략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매우 단편적이다. 반면에 이에 대한 경제적 사례는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데 소는 인도 국민의 주업인 농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를 신성화 했다는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소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한 브라미니즘은 이를 강해가 비판하는 불교와의 경쟁 속에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방편으로 소의 희생공양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결국 채식주의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이슬람교에서도 돼지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이유가 농민을 통제하고 도시 중심지에 공급할 잉여 농산물을 확보하려는 이유와 돼지라는 가축자체가 유목민들보다는 정착민들에게 더욱 적합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했다는 주장을 인용한다.

그렇다면 사회경제적 동기가 음식에 대한 종교적 가르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이 내려지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관성을 논문에서 명확하게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여건에 인한 규제가 종교적 권위를 부여 받기까지 어떠한 역사/신학적 과정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대교의 음식규제 (레위기 11장)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친숙하고 구약에 그 자세한 종교적 이유가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해석학적 이슈로 대두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구약은 신약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대 성경신학자들에게 지지를 받기 어려운 해석학적 접근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존 파인버그 편 *연속성과 불연속성 - 신구약성서의 관계*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6 참조). 신약을 통해 구약을 재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신학자들이 이러한 해석학적 접근을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타력종교이기 때문에 음식규제가 자유롭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쓸모없는 규제로 전락해버린 것인가?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자유로움”이 구약의 율법에 연관하여 무슨 뜻인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식규제에 있어서 기독교의 자유함이 어떻게 동물권 (Animal Rights)에 유익한 것인가?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